

# 기형도 시에 나타난 침상도시(bed town)의 로컬리티 연구\*

송지선(전북대)

## 〈목 차〉

- |                     |                         |
|---------------------|-------------------------|
| 1. 머리말              | 4. 진정한 장소와 구름 혹은 공기의 정체 |
| 2. 도시적 익명성과 딱딱함의 정체 | 5. 맺음말                  |
| 3. 산책자의 시선과 거리의 이야기 |                         |

## 1. 머리말

기형도는 유년 시절부터 스물아홉의 나이로 요절할 때까지 25년간 ‘광명’에 거주했다. 1980년대 ‘광명’(당시는 경기도 시흥군)은 서울의 배후지 농촌이었으나, 산업화를 거치면서 기능적으로 배치된 침상도시로 변화한다. 침상도시(bed town)는 서울의 자본축적의 고도화를 위하여 경제적 관계를 보다 치밀하게 조직하고자 주택지역으로 특화된 서울의 위성도시를 말한다. 서울 주변에 들어선 위성도시들은 대부분 침상도시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기형도는 산업화를 겪으며 생겨난 ‘광명’의 장소상실을 문학작품에서 하나

\*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4S1A5B5A07042085)

의 중요한 주제로 다루고 있다. 도시의 거리에서 그는 ‘낮춤’과 ‘거리두기’라는 산책자의 시선을 통해, 도시 군중의 익명성을 포착하여 그의 작품에 독특한 방식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도시화가 가져온 익명성의 문제는 감각의 변형과 시선의 문제를 가져옴과 동시에 도시적 장소성에 기반을 두는 표현방법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기형도 시에 나타난 침상도시의 장소성에 관심을 갖고, 그것이 기형도 시의 형상화 방식과 어떤 영향관계가 있는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여기서 말하는 ‘침상도시’라는 공간표상은 비단 ‘광명’에만 국한되지 않고, ‘서울’의 주변도시를 아우르는 것이다.

지금까지 문학 연구에서 시인이 살았던 지역은 전기적 배경으로 치부되어 소홀히 다루어졌다. 그러나 장소, 지역은 한 인간의 세계관을 구체적으로 형성하는 토대로서 시인의 출생지, 거주지의 장소성은 시인의 표상체계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리얼리즘 시의 경우 그 의미의 본질에 다가서기 위해서는 시인의 오랜 거주지의 장소성이 어떠했나를 살펴보는 것은 유효한 접근이다.

본 연구에서 로컬리티는 한 국가 내에서 중앙과 대비되는 일정한 지역에서 발현되는 사회적 현상과 그 공간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개인적 혹은 집단적 세계관으로 규정한다. 국가 하위의 독자적인 단위로서의 로컬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로컬과 중심의 상호관계성은 지배 혹은 종속, 영향력, 권력 등의 관점에서 연구되어야 한다. 기형도 시에 나타난 침상도시의 로컬리티 연구도 이러한 맥락에서 접근된다. 즉 ‘서울’에 포섭된 ‘광명’의 로컬리티를 말하고자 한다.

문학의 로컬리티 연구는 기본적으로 공간과 장소에 대한 연구와 친연성을 갖는다. 기형도 시의 공간, 장소의식을 해명하는 선행연구에서 도시 공간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목선균<sup>1)</sup>은 도시 공간의 불확실함을 이야기하면서 도시 공간의 무채색의 이미지는 시적 화자의 방황하는 도시적 삶의 모습을 더욱 선명하게 부각시켜 주고 있다고 한다. 이유선<sup>2)</sup>은 기형도 시에서의 ‘도시 이미지’를 도시의 삶은 익명적이고 뿌리도 없으며 과거부터 존재하던 인간관계의 연계로부터 단절된

1) 목선균, 「기형도 시의 이미지 분석-공간 이미지를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석사논문, 2002.

2) 이유선, 「기형도 시의 공간 이미지 연구」,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7.

부정적 이미지라고 말한다. 이것은 본 연구에서 말하고자 하는 도시적 삶과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일반적 도시가 아닌 ‘서울’의 주변도시로서 침상도시의 특수한 장소성을 살펴본다는 점에서 그 구체성과 차별성을 확보한다.

이세경<sup>3)</sup>은 기형도 시에 나타나는 ‘길’을 시인의 어두운 내면의식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고 말한다. 구체적으로 기형도의 ‘길’은 유년의 상처와 고통, 세계와 화해가 불가능한 닫힌 공간이라고 파악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세경은 ‘길’을 근원적 한계를 지닌 부정적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사회적 인식 공간으로서 ‘길’의 의미를 간과한 결과이다. ‘길’은 유동적이고 집단이 공유하는 곳으로 풍부한 사회적 의미망을 형성한다. 따라서 기형도 시의 ‘길’은 로컬리티의 원동력이 되는 생산적 공간이다. 본 연구는 이세경이 말한 ‘길’의 의미와 달리, ‘길’은 ‘광명’의 정체성을 해석하는 시인의 위치임을 말하고자 한다.

한금화<sup>4)</sup>는 기형도 시의 유년 공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도시 공간에 대한 부정성으로 연계된다고 말한다. 이광호<sup>5)</sup>는 서정시의 재래 문법에서 벗어난 그의 시적 선택이 가능했던 것은 “의명적인 도시적 감성”에 있다고 파악한다. 기형도의 시가 “거리의 시간” 위에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관찰자적인 나의 시선”과 “습관의 시간 속에 있는 군중들과의 관계” 속에서 시인의 독특한 시선의 구조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 글은 본 연구의 방향과 상당히 일치하는 면이 있다. 그러나 이 글은 기형도가 “의명적인 도시적 감성”을 시적으로 선택한 필연적 이유를 간과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형도 시에 “의명적 도시 감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유년기부터 요절할 때까지 25년간 거주했던 침상도시 ‘광명’의 장소성에 있음을 명확히 밝히고자 한다.

금은돌<sup>6)</sup>은 기형도 시의 딱딱한 성질로 치환되는 이미지들이 인공적인 가상공간을 만들어 내고, 그것은 환상의 시작이라고 말한다. 이는 딱딱한 성질의 이미지들이 ‘광명’이라는 서울 주변 도시의 장소 상실을 비유하는, 즉 실제

3) 이세경, 『한국 현대시에 나타난 공간인식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논문, 2007.

4) 한금화, 『기형도 시의 공간 의식 연구』, 『겨레어문학』 40, 겨레어문학회, 2008, 357-384쪽.

5) 이광호, 『기형도와 거리의 시간』, 『도시인의 탄생 : 한국 문학과 도시의 모더니티』, 서강대 출판부, 2010.

6) 금은돌, 『거울 밖으로 나온 기형도』, 국학자료원, 2013.

현실의 장소성을 의미한다는 본 연구의 관점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이와 같이 기존 연구들은 기형도 시의 공간 인식을 ‘무채색, 비어있음, 단절됨, 어두움, 억압, 익명성’ 등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 공간 인식의 본질과 기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간과한 채, 지극히 피상적이고 일반적인 도시의 성격으로 기형도 시의 도시 공간 이미지를 말하고 있다. 본 연구는 여러 평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낮설고 딱딱하고 비어 있음’의 공간 이미지가 침상도시의 로컬리티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말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형도 시의 공간과 장소 의식을 현실과 동떨어져 추상적·보편적으로 접근했던 기존 연구 성과를 재평가하여 실제 현실 속의 고유한 장소성에 기반한 기형도 시의 구체성과 특수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침상도시의 로컬리티를 파악하기 위한 실천적 개념으로 에드워드 켈프의 ‘무장소’와 벤야민의 ‘산책자’ 개념을 차용·적용하기로 한다. 켈프의 ‘무장소’<sup>7)</sup>는 침상도시의 장소상실을 설명하는데 필요한 개념으로 중심에 포섭된 주변의 로컬리티를 말하는 데 필수적 요소이다. 벤야민의 ‘산책자’<sup>8)</sup>는 시인의 시야에 들어온 도시 현실에 대해 냉정한 미적 거리를 분석하기 위한 개념이다. 여기서 ‘산책자’는 배회를 통해 도시를 읽고 해석하여 로컬리티를 발견하는 자라고 할 수 있다.

## 2. 도시적 익명성과 딱딱함의 정체

1

아침저녁으로 셋방에 자욱이 안개가 낀다.

---

7) 무장소는 켈프가 주장하는 핵심개념으로, 장소가 상업적 개발과정에서 개성을 박탈당해 동질적이고 규격화된 경관으로 변화되어 결국은 고유한 장소감을 상실하는 것을 표현한다. (에드워드 켈프, 김덕현·김현주·심승희 역,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2005, 참조)

8) 산책자의 발자국 소리가 가까이 다가오는 것만으로도 장소는 벌써 생기를 찾고 산책자는 그런 장소의 눈길을 이해한다. 산책자는 거리를 쓰다니다가 눈앞에 감각적으로 나타나는 것뿐만 아니라 종종 단순한 지식, 죽은 데이터까지 마치 몸소 경험한 것처럼 자기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발터 벤야민, 조형준 역, 『도시의 산책자』, 새물결, 2008, 참조)

이 읍에 처음 와본 사람은 누구나/거대한 안개의 강을 거쳐야 한다./앞서간 일행들이 천천히 지워질 때까지/쓸쓸한 가축들처럼 그들은/그 긴 방죽 위에 서 있어야 한다./문득 저 홀로 안개의 빈 구멍 속에/간혀 있음을 느끼고 경악할 때까지.

어떤 날은 두꺼운 공중의 종잇장 위에/노랗고 딱딱한 태양이 걸릴 때까지/안개의 軍團은 셋강에서 한 발자국도 이동하지 않는다./출근길에 늦은 여공들은 짙게 지나가고/긴 어둠에서 풀려나는 검고 무뚝뚝한 나무들 사이로/아이들은 느릿느릿 새어나오는 것이다.

안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처음 얼마동안/보행의 경계심을 늦추는 법이 없지만, 곧 남들처럼/안개 속을 이리저리 뚫고 다닌다. 습관이란/참으로 편리한 것이다. 쉽게 안개와 식구가 되고/멀리 송전탑이 희미한 동체를 드러낼 때까지/그들은 미친 듯이 흘러다닌다.

가끔씩 안개가 끼지 않는 날이면/방죽 위로 걸어가는 얼굴들은 모두 낯설다. 서로를 경계하며/바쁘게 지나가고, 맑고 쓸쓸한 아침들은 그러나/아주 드물다. 이곳은 안개의 聖域이기 때문이다.

날이 어두워지면 안개는 셋강 위에/한 겹씩 그의 빠른 옷을 벗어놓는다. 순식간에 공기는/희고 딱딱한 액체로 가득 찬다. 그 속으로/식물들, 공장들이 빨려들어가고/서너 걸음 앞선 한 사내의 반쪽이 안개에 잘린다.

몇 가지 사소한 사건도 있었다./한밤중에 여직공 하나가 겁탈당했다./기숙사와 가까운 곳이었으나 그녀의 입이 막히자/그것으로 끝이었다. 지난 겨울엔/방죽 위에서 醉客 하나가 얼어 죽었다./바로 걸을 지난 삼륜차는 그것/쓰레기 더미인 줄 알았다고 했다. 그러나 그것은/개인적인 불행일 뿐, 안개의 탓은 아니다.

...<후략>...

- 「안개」 일부

『안개』는 기형도의 유고 시집 『잎 속의 검은 잎』의 서시적인 작품이다. 유년기부터 성인기까지 ‘광명’에서 거주한 기형도가 침상도시의 익명성과 장소상실을 시의 출발점으로 삼고 비판적으로 형상화한 것은 숙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작품은 ‘서울’의 배후지 농촌이 침상도시로 탈바꿈하면서 겪는 익명성의 추이와 장소상실의 과정을 “안개”의 ‘딱딱함’을 통해 표현하고 있다. “공중”과 “태양”까지 ‘두껍고 딱딱한’ 것으로 형상화하여 익명적 세계의 견고함을 보여준다.

문학의 로컬리티를 묻는 일차적인 방법은 구체적 장소를 묻고, 장소성이 발현되는 현장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다.<sup>9)</sup> 작품은 개인이 경험한 즉자적 세계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석해 현실화한 결과물이라고 할 때, 그 즉자적 세계는 시인이 위치하고 있는 현실적 장소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시의 구체적 현장은 기형도가 유년기를 보낸 안양천변이다. 그는 안양천 뚝방을 지나 시흥대교를 거쳐 시흥국민학교까지 걸어다녔다. 당시 이 길은 마을 사람들이 행렬을 이루며 공장으로 가는 길이기도 했다. 이 뚝방길은 질식할 것 같은 두꺼운 안개가 매일같이 끼었다.

“안개”는 존재의 흔적을 지우는 물질로서 “셋강”에 자욱한 익명성을 심화시킨다. “안개”의 “딱딱한” 성질은 “안개의 軍團”, “안개의 聖域”으로 확대되고, 그것은 “사내의 반쪽”이 잘릴 만큼 침상도시의 세계를 지배하는 둔중하고 날카로운 무기가 된다. 이러한 “안개”의 무자비함은 안개 속에서 여직공이 겁탈당하고 취객이 방죽 위에 얼어 죽어 쓰레기 취급을 당해도 일상사의 단편적인 일로 치부할 정도이다. “셋강”의 “안개” 속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일상적 경험·사건을 통해 장소 상실로 인간성까지 상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데이비드 하비는 “장소 특히 장소성은 외적으로 존재하는 실체가 아니라 사회적 구성물이다. 따라서 그렇게 읽히고 이해되어야 한다.”<sup>10)</sup>라고 말한다. 특정한 장소는 단순히 우리의 기억이나 관심 속에서 주관적으로 건설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회적 과정이나 배경 속에서 구축되며, 또한 그 사회의 지배

9) 문재원, 『로컬리티 연구의 동향과 과제』, 『로컬리티, 인문학의 새로운 지평』,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편, 해안, 2009, 212쪽.

10) 데이비드 하비, 구동희, 박영민 역, 『포스트 모더니티의 조건』, 한울, 1994, 71쪽.

적 담론과 관련된다는 것이다. 우리에게 익숙한 삶의 장소에서 벌어지는 사건과 경험은 우리의 삶을 이해하게 해주는 중요한 토대가 된다.

이 작품이 창작되던 당시 안양천변에 “공장”이 세워지고 아침마다 노동자들이 “쓸쓸한 가축들처럼” “긴 방죽”을 걸어가던 모습에서 기형도는 그들이 “안개의 빈 구멍 속에 갇혀 있”다고 느낀다. 이것은 존재의 익명성을 강화하는 “안개”로 인해 사람간의 소통이 단절된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기형도의 유년기에 ‘광명’은 도시 배후의 농촌이었다. 따라서 농촌 특유의 뿌리 깊은 인간관계는 장소애착을 불러 일으켰다. 그러나 성인기의 ‘광명’은 침상도시의 기능적 역할을 하는 지역으로 탈바꿈하면서, 즉 ‘서울’에 포섭되어가면서 끈끈한 인간관계는 해체되고 장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 3. 산책자의 시선과 거리의 이야기

1

그런 날이면 언제나  
이상하기도 하지, 나는  
어느새 처음 보는 푸른 저녁을 걷고  
있는 것이다, 검고 마른 나무들  
아래로 제각기 다른 얼굴들을 한  
사람들은 무엇인가 열중하며  
걸어오고 있는 것이다, 혹은 좁은 낭하를 지나  
이상하기도 하지, 가벼운 구름들같이  
서로를 통과해가는

...<중략>...

공기는 푸른 유리병, 그러나  
어둠이 내리면 곧 투명해질 것이다. 대기는

그 속에 등글고 빈 통로를 얼마나 무수히 감추고 있는가!  
…<중략>…

2

…<중략>…

몇몇은 딱딱해 보이는 모자를 썼다  
이상하기도 하지, 가벼운 구름들같이  
서로를 통과해가는  
나는 그것을 습관이라 부른다, 또다시 모든 움직임은 홀연히 정지  
하고, 거리는 일순간 정적에 휩싸이는 것이다, 그러나  
안심하라, 감각이여!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검은 외투를 입은 그 사람들은 다시 저 아래로  
태연히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  
어느 투명한 저녁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모든 신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 「어느 푸른 저녁」 일부

“나는 그것을 본다”에서 알 수 있듯 시적 주체는 도시와 군중의 상관성을 산책자의 시선으로 파악하고 있다. “어느새 처음 보는 푸른 저녁”과 같이 “나”는 매일 건넌 낯익은 공간을 낯설게 보고 있다. 이것은 일상 공간이 수행하고 있는 기능적인 사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을 터전으로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주목하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산책자의 전형으로서 시적 주체는 “야외의 자연을 편하게 느끼지 않으며, 그에게 인간과의 소통, 인간에 대한 관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sup>11)</sup>기 때문이다.

시적 주체인 산책자는 “대기는/ 그 속에 등글고 빈 통로를 얼마나 무수히 감추고 있는가!”, “또다시 모든 움직임은 홀연히 정지/ 하고, 거리는 일순간

---

11) 발터 벤야민, 앞의 책, 28쪽.



정적에 휩싸이는 것이다”에서 기체인 “대기”를 고체화하여 딱딱한 “빈 통로”로 인식하고 “거리”가 순간 “정지”되고 “정막” 상태가 되는 것처럼 낯설게 경험하고 있다. 이는 침상도시의 장소성과 군중의 익명성을 ‘낯설고 딱딱하고 비어 있음’으로 통찰한 시적 주체의 인식을 형상화한 것이다.

이러한 이미지는 보통 ‘어둠’에서 인식되고 있다. 침상도시의 거주민은 아침에는 직장이 있는 ‘서울’로 나가고 저녁에 되어야 돌아온다. 따라서 거리의 “사람들”은 ‘밤’이 되어야 목격할 수 있다. 기형도가 거리에서 목격한 침상도시의 군중은 “검은 외투를 입”고 “딱딱해 보이는 모자를 썼다.” 무생명력과 인간관계의 단호함을 나타내는 “검은” 색채감과 “딱딱한” 촉감은 낯익은 거리를 갑자기 낯설게 느껴지게 한다. 그 경험은 시적인 것이면서 사회적인 것이다. 거리는 그를 고립시키고, 그 고립은 시적 주체도 고립적 존재로 만든다. “검고 마른 나무들/ 아래로 제각기 다른 얼굴들을 한/ 사람들은 무엇엔가 열중하며/ 걸어오고 있는 것이다”와 같이 각자는 개인적인 관심 속에 무정하게 고립되어 있다. 이러한 고립은 도시의 익명성을 형성하는 기본원리며, 이는 침상도시의 로컬리티와 연관된다.

“가벼운 구름들같이/ 서로를 통과해가는” “사람들”의 흐름은 인간관계에서 ‘무관심과 거리두기’라는 특징을 지니는 익명성을 표현한다. 이와 같은 뿌리 없는 정체성은 자신의 거주지와도 ‘무관심과 거리두기’를 형성하여 장소애착을 불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침상도시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터에서 공간적 소외감, 텅 빈 느낌을 가지게 된다. 산책자인 시적 주체는 이러한 무장소적 현상에 대해 익명의 군중들이 “진공 속”의 “진자”가 되어 “보이지 않는 거대한 숨구멍 속으로 빨려들어” 간다고 말하고 있다.

도시 내 주거지역이 거주인구의 특성에 따라 동질성을 가진 하위지역들로 구분되어가는 과정을 거주지 분화라고 한다. 이 때 거주지 분화지역을 야기하는 요인은 소득이나 직업, 교육 수준과 같은 사회경제적 지위이다.<sup>12)</sup> 1980년대 당시 침상도시 ‘광명’은 급속한 산업화·도시화에 밀린 철거민과 수재민의 정착지였다. 기형도 시의 시적주체는 산책자의 시선으로 남루한 행색으로 도시의 후미진 골목을 정처 없이 떠도는 그들을 관찰한다.

12) 최병두 외, 『인문지리학 개론』, 한울아카데미, 2009, 262쪽 참조.

…<전략>…

아까부터 서울집 뒷마루에 앉은 여자  
외상값처럼 밀려드는 대낮  
신작로 위에는 흙먼지, 더러운 비닐들  
빈 들판에 꽃혀 있는 저 희미한 연기들은  
어느 쓸쓸한 풀잎들의 자손들일까  
밤마다 술한 나무젓가락들은 두 쪽으로 갈라지고  
사내들은 화투패마냥 모여들어 또 그렇게  
어디론가 뿔뿔이 흩어져간다  
여자가 속옷을 행구는 시냇가엔  
하룻밤새 없어져버린 풀꽃들  
다시 흘러들어온 것들의 人事  
흐린 앞전구 아래 영망으로 취한 군인은  
몇 해 전 누이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고, 여자는  
자신의 생을 계산하지 못한다  
몇 번인가 아이를 지을 때 그랬듯이  
습관적으로 주르르 눈물을 흘릴 뿐  
끌어안은 무릎 사이에서  
추억은 내용물 없이 떠오르고  
小邑은 무서우리만치 고요하다, 누구일까  
…<후략>…

— 「봄날은 간다」 일부

이 작품은 “서울집 뒷마루”에 앉아 있는 한 술집 작부의 이야기를 통해 침상도시의 장소성을 표현하고 있다. 저녁이 되어야 활기를 찾는 침상도시, “小邑”(기형도가 이 작품을 쓸 당시는 경기도 시흥군 소하리)의 “대낮”은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 “무서우리만치 고요하다”. “대낮”의 무료함과 공허함은 “흘러 들어온 것들의 人事”로 채워진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술집 작부와 군인’의 이야기로, 그들은 친족적 지역적 연고도 없는 뿌리 없는 침상도시의 주변성을 찾아온 사람들이다.

시적주체인 산책자는 이들이 만든 장소성을 “통속 문학의 삽화처럼”.<sup>13)</sup> 서

술한다. 그는 “흐린 앞전구 아래 엉망으로 취한 군인은/ 몇 해 전 누이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고, 여자는/ 자신의 생을 계산하지 못한다/ 몇 번인가 아이를  
 지울 때 그랬듯이/ 습관적으로 주르르 눈물을 흘릴 뿐/ 끌어안은 무릎 사이에  
 서/ 추억은 내용물 없이 떠오르고”와 같이 자기의 생각을 이미지들에 딸린 텍  
 스트처럼 묘사한다. “산책할 때는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아득히 먼 것이  
 풍경과 순간 속으로 한편의 이야기로 침입해 들어”오기 때문이다<sup>14)</sup>. 이처럼  
 시적주체인 산책자는 “小畵”의 “대낮”에 펼쳐지는 침상도시의 소외와 침체의  
 장소성을 우회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도시화의 확대로 교통이 발달하고 그에 따라 “흘러들어온” 사람들에게 장  
 소애착이 구성될 여지는 어렵다. 오랜 대면관계를 통한 친밀함이 있어야 개인  
 의 존재가 공동체 속에서 보호받을 수 있으나, 도시적 유동성은 이러한 인간  
 관계의 진정성을 방해하고 장소성의 상실로 이어지게 한다. 인간관계의 친밀  
 함도 장소에 대한 애착도 없는 상태는 피상적 의미관계로 구축된다. ‘술집 작  
 부와 군인’처럼 “흘러들어온” 사람들은 어딘가에 얽매임 없이 자유롭게 떠돌  
 며 익명성을 즐기기도 하지만, 표류하는 심리는 늘 불안함을 떨치지 못한다.

매춘은 여성과 고객이 서로 안면이 없는 관계에서 이루어진다. 그것은 도  
 시적 익명성으로 가능한 것이다. 서로를 잘 아는 소규모의 농촌사회에서 매춘  
 은 불가능한 일이다. 농촌의 도시화 확대로 “흘러들어온” 여성들 중 일부는  
 초기 정착 시기의 경제적 궁핍을 모면하고자 매춘을 생계의 유일한 방법으로  
 선택한다. 『봄날은 간다』는 자신의 정체성과는 무관한 장소로 “흘러들어온”  
 사람들을 통해 장소의 상실이 정체성의 상실로 이어질 수 있음을 말한다.

눈이 그친다.  
 仁川집 흐린 유리창에 불이 꺼지고  
 낮은 지붕들 사이에 끼인  
 하늘은 딱딱한 널빤지처럼 떠 있다.  
 가늠할 수 없는 넓이로 바람은  
 손쉽게 더러운 담벼락을 포장하고

13) 발터 벤야민, 앞의 책, 14쪽.

14) 위의 책, 16쪽.

씨락눈들은 비명을 지르며 튀어오른다  
 흙집투성이 흑백의 字幕 속을  
 한 사내가 천천히 걷고 있다.  
 무슨 農具처럼 굵은 손가락들, 어디선가 빠뜨려버린  
 몇 병의 취기를 기억해내며 사내는  
 문닫힌 商會 앞에서 마지막 담배와 헤어진다.  
 빈 골목은 펼쳐진 담요처럼 쓸쓸한데  
 씨락눈 낮은 축광 위로 길게 흔들리는  
 기침 소리 몇. 검게 얼어붙은 간판 밑을 지나  
 휘적휘적 사내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  
 이 밤, 빛과 어둠을 분간할 수 없는  
 팡팡 빛나는, 이 무서운 白夜  
 밝을수록 더욱 단단해지는 눈길을 만들며  
 軍用 파카 속에서 칭얼거리는 어린 아들을 업은 채

- 「白夜」 전문

「白夜」의 시적 주체는 산책자의 시선으로 밤이 된 도시의 “빈 골목”을 배회하는 “한 사내”를 관찰한다. “한 사내”의 관찰을 통해 그의 직업과 가계의 성격을 읽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산책자의 환상’<sup>15)</sup>이다. 즉 『白夜』는 시적주체인 산책자가의 환상이 만들어낸 침상도시 뒷골목의 이야기이다.

그는 “한 사내”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도시 골목이 하는 이야기를 듣는다. “딱딱한 널빤지처럼 떠 있”는 “하늘”과 “팡팡 빛나는 백야” 그리고 “밝을수록 더욱 단단해지는 눈길”이 말하는 딱딱한 부정성은 침상도시의 무장소성을 드러냄과 동시에 그 곳에서 추방당한 “한 사내”의 익명적 좌절을 표현한다. “빈골목”은 ‘불이 꺼진 인천집, 더러운 담벼락, 문닫힌 상회’를 통해 황무지로 그려지고 있다.

여기서 ‘그’는 존재의 그저 있음을 표현하는 비인칭적 존재이다. ‘그’는 비인칭적 존재이자 타자로 가기 위한 길목 역할을 하는 존재이다. 1인칭 ‘나’안에서 타자성을 발견하는 ‘그’가 되기도 한다.<sup>16)</sup> 밤의 도시, 침상도시는 명사적인

15) 위의 책, 35쪽.

것을 앗아가는 힘을 지닌다. 도시는 그 익명성을 토대로 개인의 정체성을 억압한다.

...<전략>...

흰 김이 피어오르는 골목에 떠밀려  
그는 갑자기 가랑비와 인파 속에 뒤섞인다  
그러나 그는 다른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다  
모든 세월이 떠돌이를 범으로 몰아냈으니  
너무 많은 거리가 내 마음을 운반했구나  
그는 천천히 얇고 검은 입술을 다문다  
가랑비는 조금씩 그의 머리카락을 적신다  
한마디로 입구 없는 삶이었지만  
모든 것을 취소하고 싶었던 시절도 아득했다  
나를 괴롭힐 장면이 아직도 남아 있을까  
모퉁이에서 그는 외투 깃을 만지작거린다  
누군가 나의 고백을 들어주었으면 좋으련만  
그가 누구든 엄청난 추억을 나는 지불하리라  
...<중략>...

어떠한 날씨도 이 거리를 바꾸지 못하리  
검은 외투를 입은 중년 사내 혼자  
가랑비와 인파 속을 걷고 있네  
너무 먼 거리여서 표정은 알 수 없으나  
강조된 것은 사내도 가랑비도 아니었네

- 「가수는 입을 다무네」 일부

「가수는 입을 다무네」는 유동하는 거리의 익명적 현장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거리의 “인파” 속에서 “그는 다른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으며, “가랑비” 속에서도 “강조”되지 않는다. “그”와 “나”는 익명성에 의해 타자화 된다

---

16) 금은돌, 앞의 책, 18쪽.

는 점에서 둘의 구분은 무의미하다. ”그“의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이며, ”나“의 이야기는 ”그“의 이야기이다.

“흰 김이 피어오르는” 술집 골목과 같은 경제적 체계공간의 팽창은 침상도시의 일상적 생활공간까지 잠식하여 자아의 ‘뿌리 뽑힘’ 현상을 야기한다. 자본주의적 이윤을 추구하는 도시의 속성은 대면적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나의 고백”을 들어주지 않고, 그의 정체는 한갓 “검은 외투”로 밖에 드러나지 않는다. “그”의 위치는 군중 속에 들어가는 순간 망각될 만큼 침상도시의 “골목”은 무장소적 특징을 지닌다.

침상도시의 다양한 일상 공간은 다양한 인간의 자화상을 드러낸다. 인간은 장소를 통해 자신을 확인받으려 하고, 장소는 그런 인간의 욕망을 담아낸다. 그러나 기형도의 시에 나타난 침상도시의 익명성은 인간의 다양한 삶의 욕망을 차단한 채 “소통의 불가능성”, “간헐 개별자의 비극적 모습”<sup>17)</sup>을 음울하게 형상화하고 있다.

#### 4. 진정한 장소와 구름 혹은 공기의 정체

저녁노을이 지면  
神들의 商店엔 하나둘 불이 켜지고  
농부들은 작은 당나귀들과 함께  
城안으로 사라지는 것이었다  
성벽은 울창한 숲으로 된 것이어서  
누구나 寺院을 통과하는 구름 혹은  
조용한 공기들이 되지 않으면  
한걸음도 들어갈 수 없는 아름답고  
신비로운 그 城

17) 기형도 시의 최초의 해설인 『영원히 닫힌 빈방의 체험』에서 김현은 그의 시를 괴이한 이미지의 중첩과 소통의 불가능성, ‘간헐 개별자의 비극적 모습’들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는 세계라 보고, 그 비극적 세계관을 ‘그로테스크 리얼리즘’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김현, 『영원히 닫힌 빈 방의 체험』, 박해현·성석제·이광호 편, 『정거장에서의 충고』, 문학과지성사, 2009, 181~199쪽, 참조.)

어느 골동품 商人이 그 숲을 찾아와  
몇 개 큰 나무들을 잘라내고 들어갔다  
그곳에는……아무것도 없었다, 그가 본 것은  
쓰러진 나무들뿐, 잠시 후  
그는 그 공터를 떠났다

농부들은 아직도 그 평화로운 城에 살고 있다  
물론 그 작은 당나귀들 역시

- 「숲으로 된 성벽」 전문

「숲으로 된 성벽」에서 “城”의 신비로움은 “神들의 商店”과 “寺院”으로 비유되어 그곳의 경건함과 평화로움의 의미로 확대되고 있다. 이 작품은 기형도의 시세계에서 보기 드물게 화해로우며 낭만적인 장소성을 형상화하고 있다. 이 시를 통해 기형도가 침상도시의 음울한 익명성을 탈피하여 ‘농부와 당나귀’의 자연친화력을 바탕으로 한 진정한 장소를 희구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이는 침상도시의 장소상실에 대한 대안으로서, 기형도가 추구한 진정한 장소가 어떤 곳인지를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이 “성(城)”은 “골동품 商人”처럼 세속화된 사람들에게는 “공터”로만 보일 뿐이다. 모든 장소를 자본 축적의 기능적 공간으로 대체하는 속인들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는 원초적이고 순수한 공간이다. ‘농부와 당나귀’처럼 세속에 물들지 않고 자연의 이치와 땅의 순리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만이 “그 평화로운 성에”서 살아갈 수 있다.

“골동품 商人”은 “몇 개 큰 나무들을 잘라내고” 그 숲에 들어간 반면 ‘농부와 당나귀’는 ‘구름 혹은 공기들이 되어 들어간다. 여기서 ‘구름 혹은 공기’는 앞에서 말한 ‘딱딱함’과 반대의 의미를 지닌다. ‘딱딱함’이 익명적 세계의 단호함과 무장소적 특징을 형상화 한 것이라면 부드러운 속성을 지닌 ‘구름 혹은 공기’는 인간관계의 조화로우름과 자연의 장소성을 표현한다. 따라서 ‘농부와 당나귀’는 ‘성벽의 울창한 숲’이 주는 진정한 장소성을 전혀 해치지 않고 “그 평화로운 城에 살고 있”지만 “골동품 商人”의 무장소적 감각은 그곳을 떠나게 하는 것이다.

1

우리는 너무 어렸다. 그는 그해 가을 우리 마을에서 잠시 머물다 떠난 떠돌이 사내였을 뿐이었다. 그러나 어른들도 그를 그냥 일꾼이라 불렀다.

2

그는 우리에게 자신의 손을 가리켜 神의 공장이라고 말했다. 그것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굶주림뿐이었다. 그러나 그는 항상 무엇인가 굶주려 있었다. 그는 무엇이든지 만들었다. 그는 마법사였다. 어떤 아이는 실제로 그가 토마토를 가지고 둥근 금을 만드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다. 그가 어디에서 흘러들어왔는지 어른들도 몰랐다. 우리는 그가 트럭의 고장 고등어의 고장 아니, 포도의 고장에서 왔을 거라고 서로 심하게 다툰 적도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저녁때마다 그는 농장의 검은 목책에 기대앉아 이상한 노래들을 불렀다.

모든 풍요의 아버지인 구름  
모든 질서의 아버지인 햇빛  
숲에서 날 찾으려거든 장화를 벗어주세요  
나는 나무들의 家臣, 짐승들의 다정한 만형

그의 말은 누구도 이해할 수 없었다. 어른들은 우리들에게 호통을 쳤다.  
…<후략>…

- 「집시의 詩集」

이 작품에서 “그”는 “떠돌이 사내”, “집시”로 표현되고 있다. 즉 “그”는 『숲으로 된 성벽』에서의 ‘구름과 공기’처럼 자연친화적이고 유동적인 성질을 가진 “어디에서 흘러들어”온 사람이다. 사람은 곧 자신이 살고 있는 장소이고, 장소는 곧 그 곳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 즉 인간 행위의 바탕에는 장소가 있으며, 인간 행위는 다시 장소에 특성을 부여하게 된다.<sup>18)</sup> 『숲으로 된 성벽』에서

18) 에드워드 렐프, 앞의 책, 29쪽.



“城”의 장소성 그 신비함과 평화로움은 위 작품의 “그”에게 전이되어 나타난다. “그”의 손은 “토마토를 가지고 둥근 금을 만드는” “神의 공장”이며 “그”는 “나무들의 家臣, 짐승들의 다정한 만형”인 것이다. 이처럼 “그”는 “우리 마을”에 자연친화성을 바탕으로 한 잠재적 애착을 형성하는 사람이자 장소가 된다.

그러나 “어른들”은 “그를 그냥 일꾼이라” 부를 만큼 “그”가 만들어내는 장소성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이는 『숲으로 된 성벽』에서 “골동품 商人”이 “평화로운 城”을 어떤 의미도 없는 “공터”로 인식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숲으로 된 성벽』에서 “농부와 당나귀”가 “골동품 商人”과 대립적 의미를 가진 바와 같이 이 작품에서 “그”는 “어른들”과 대립적 의미를 지닌다. 즉 “그”가 ‘농부와 당나귀’처럼 자연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며 평화로운 삶을 상징한다면, “골동품 商人”과 “어른들”은 자연의 장소성을 파괴하는 세속적 가치를 상징한다.

따라서 ‘낮설고 딱딱하고 비어 있음’의 공간 이미지가 침상도시의 익명성과 소통의 단절을 형상화한다면, ‘구름 혹은 공기’의 ‘흘러가는 부드러움’의 자연친화적 이미지는 기형도가 추구한 진정한 장소성을 형상화한다.

## 5. 맺음말

오늘날의 학문은 구조적인 시각을 요구하는 거대 담론보다는 개인의 일상을 소재로 하는 미시 담론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문학 연구도 거대한 중심 권력에 파묻힌 주변 지역의 장소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형도 시의 침상도시에 나타난 로컬리티 연구는 기형도 시의 형상화 방식의 기원을 밝히는 일이자, ‘서울’의 주변으로 치부된 침상도시의 정체성을 파악하는 생산적 작업이다.

지금까지 기형도 시의 ‘낮설고 딱딱하고 비어 있음’의 공간 이미지가 침상도시의 로컬리티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그의 작품을 통해 살펴보았다. 기형도의 시에는 ‘서울’ 배후의 농촌이었던 ‘광명’이 침상도시로 탈바꿈하면서 겪는 익명성의 추이와 장소상실의 과정, 그리고 그에 따른 군중의 소통 단절과 거리의 ‘낮섞’을 ‘딱딱하고 비어 있음으로’ 형상화하고 있는데, 이는 침상도시의

로컬리티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침상도시의 익명성을 탈피한 진정한 장소에 대한 기형도의 회구는 ‘딱딱함’의 반대 성질인 자연친화적이고 부드러운 ‘구름과 공기’로 형상화된다.

이처럼 기형도 시에는 침상도시의 일상을 지배하는 거대한 체제에 관한 시인의 자각과 비판이 담겨 있다. 침상도시의 장소상실에 대한 기형도의 자각은 그로테스크 리얼리즘이라는 독특한 시의 이미지로 발현된다. 따라서 기형도 시에 나타나는 침상도시의 로컬리티를 묻는 것은 ‘서울’ 주변지역이 직면한 장소상실의 심각한 상황을 점검해 보고, 왜 우리는 장소를 상실하게 되었는가를 묻는 삶의 근본을 찾는 방법이 된다.

## 〈참고문헌〉

### 1. 자료

기형도, 『입 속의 검은 잎』, 문학과지성사, 1991.

기형도 전집 편집위원회 편, 『기형도 전집』, 문학과지성사, 1999.

### 2. 논저

금은돌, 『거울 밖으로 나온 기형도』, 국학자료원, 2013.

나카무라 유지로, 양일모·고동호 역, 『공통감각론』, 민음사, 2003.

데이비드 하비, 구동화·박영민 역, 『포스트 모더니티의 조건』, 한울, 1994.

마루타 하지메, 박화리·윤상현 역, 『‘장소’론』, 심산, 2011.

목선균, 「기형도 시의 이미지 분석-공간 이미지를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석사논문, 2002.

박선영 편, 『기형도』, 글누림, 2011.

박해현·성석제·이광호 편, 『정거장에서의 충고』, 문학과지성사, 2009.

발터 벤야민, 조형준 역, 『도시의 산책자』, 새물결, 2008.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원 편, 『로컬리티, 인문학의 새로운 지평』, 혜안, 2009.

에드워드 렐프, 김덕현·김현주·심승희 역,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2005.

에드워드 소자, 이무용 외 역, 『공간과 비판사회이론』, 시각과 언어, 1997.

이광호, 「기형도와 거리의 시간」, 『도시인의 탄생 : 한국 문학과 도시의 모더니티』, 서강대 출판부, 2010.

이세경, 「한국 현대시에 나타난 공간인식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논문, 2007.

이유선, 「기형도 시의 공간 이미지 연구」,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7.

이-푸 투안, 구동화·심승희 역, 『공간과 장소』, 대운, 2007.

최병두 외, 『인문지리학 개론』, 한울아카데미, 2009.

한금화, 「기형도 시의 공간 의식 연구」, 『겨레어문학』 40, 겨레어문학회, 2008.

## 【국문초록】

기형도는 유년 시절부터 스물아홉의 나이로 요절할 때까지 25년간 ‘광명’에 거주했다. 1980년대 ‘광명’(당시는 경기도 시흥군)은 서울의 배후지 농촌이었으나, 산업화를 거치면서 기능적으로 배치된 침상도시로 변화한다. 여기서 말하는 ‘침상도시’라는 공간표상은 비단 ‘광명’에만 국한되지 않고, ‘서울’의 주변도시를 아우르는 것이다. 기형도는 도시의 거리에서 ‘낮췌’와 ‘거리두기’라는 산책자의 시선을 통해, 도시 군중의 익명성을 포착하여 그의 작품에 독특한 방식으로 형상화한다. 도시화가 가져온 익명성의 문제는 감각의 변형과 시선의 문제를 가져옴과 동시에 도시적 장소성에 기반을 두는 표현수단, 즉 표상체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기형도 시의 지배적 공간 이미지를 ‘낮설고 딱딱하고 비어 있음’으로 보고, 이러한 공간 인식이 침상도시의 로컬리티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이러한 기형도 시의 공간과 장소 의식은 현실과 동떨어져 추상적·보편적으로 접근했던 기존 연구 성과를 재평가 한 것으로, 기형도 시의 독특한 형상화 방식이 실제 현실 속의 구체적 장소성에 기반한 것임을 말한다.

기형도 시에 나타난 침상도시의 로컬리티를 묻는 것은 ‘서울’에 종속된 주변 도시의 장소상실에 대해 성찰하고, 왜 우리는 장소를 상실하게 되었는가를 묻는 삶의 근본을 찾는 방법이 된다.

주제어: 기형도, 침상도시, 로컬리티, 장소, 장소성, 장소상실, 산책자, 익명성

【Abstracts】

## A Study on the Locality of Bed Town in Gi Hyeong-do's Poetry

Song Ji-seon

Gi Hyeong-do lived in 'Gwangmyeong' for 25 years, from his childhood till he died at an early age of twenty-nine. In the 1980s, 'Gwangmyeong' (Siheung-gun, Gyeonggi-do, at the time) was a hinterland of Seoul, a farming village, but it is transformed into a bed town functionally distributed through industrialization. He captures anonymity of the urban crowd through strollers' eyes of 'unfamiliarity' and 'distancing' on urban streets and gives form to that in his works with a unique method, for the issue of anonymity that urbanization brought about causes issues of the modification of the senses and gaze and at the same time, affects the form of expression, which is based in urban placeness, in other words, the system of representation.

This study regards 'unfamiliarity, stiffness and emptiness' as the dominant spatial image of Gi Hyeong-do's poetry and definitely reveals that this spatial recognition occurs in the locality of the bed town. The spatial representation of the 'bed town' mentioned here is not just limited to 'Gwangmyeong,' but also brings the surrounding cities of 'Seoul,'

together. This awareness of space and location in his poetry re-evaluates the results of the existing research that used abstract and universal approaches, apart from reality, which shows that his poetry is based on specific placeness in the reality.

Asking about the locality of the bed town in Gi Hyeong-do's poetry becomes a method of finding the root of life, reflecting on the loss of place in the surrounding cities subordinate to 'Seoul' and asking about the reason why we came to lose the place.

Key words: Gi Hyeong-do, bed town, place, placeness, placelessness, flaneur, anonymity

이 논문은 2015년 10월 4일에 투고되었으며, 2015년 10월 26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5년 11월 16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